

“SW·AI 역량 키워요”

디지털 새싹 캠프 '성황' 도내선 4개 기업이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 올 상반기에도 지속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진행된 디지털 새싹 캠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위탁 운영한 디지털 새싹 캠프는 방학 중 이뤄지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사업이다.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실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디지털 새싹 캠프 프로그램에 전북지역 학생 4,118명이 참가, 교육부 목표 인원 3,6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진행된 '디지털 새싹 캠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북도내에서는 4개 기업이 방문형, 집합형, 특별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학형(5개), 기업형(16개), 공공 기관형(4개), 사회적 배려형(11개) 등 전국적으로 90곳이 참여했다. 도내에서는 4개 기업이 방문형 집합형, 특별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방문형은 교사가 학급별(15명 기준)로 신청해 캠프 운영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형식이고, 집합형은 학생·학부모가 신청해 대학

이나 집합시설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끝으로 특별형은 도서·벽지,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배경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고 나아가 디지털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3~6월 상반기에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키로 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디지털 새싹은 민·관·학이 협력해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미래교육 체제로의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LINC3.0사업단은 지난 9일 ㈜스프링클라우드, 자율지능이모빌리티센터 등과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모빌리티 육성 전문기업과 '맞손'

전북대, 스프링클라우드 자율지능이모빌리티센터와 협약 인공지능·3차원 정밀맵 기반 안전 자율주행작업 등 연구

행작업 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원격제어 연구와 전기동력 모빌리티플랫폼 설계 등을 포함한 지능형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북대 자율지능이모빌리티센터는 ㈜스프링클라우드에 모빌리티 핵심기술 특화의 기술이전을 추진,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은 전북지역의 미래 먹거리”라며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강화해 수요자 맞춤형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전북지역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전북지역의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LINC3.0사업단(단장 송철규)은 지난 9일 ㈜스프링클라우드(대표 송영기), 자율지능이모빌리티센터(센터장 이택진) 등과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친환경 특수목적용 차량에 대한 인공지능 및 3차원 정밀맵 기반 안전한 자율주

연구중심대학 기반 '탄탄'

전북대, 학문후속세대 우수연구자 285명에 포상

전북대학교가 대학원생들의 우수연구 지원에 관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대학원(원장 이진숙)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공개·학술발표·특허 등록 등의 우수 연구 실적을 포상하는 리서치 챌린지 포상사업과 학문후속세대(논문연구생·신진연구인력)의 우수 논문 게재 실적에 포상하는 리서치 드림 포상사업이 펼쳐 지난 한 해 285명에게 포상하며, 학교 현장이 수업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수석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석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수업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나아가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이와 함께 시행된 '2022년도 JBNU 학문후속세대 리서치 드림 포상 사업'에서도 논문연구생 70명, 신진연구인력 17명 등 모두 87명의 우수 논문 게재 실적에 대해 총 3,930만원을 포상했다. 포상을 받은 학문후속세대 이공계열 67건의 논문 중, 전체 62.7%인 42건이 상위 10%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으며, 저널랭킹 Q1 이내의 논문은 48건으로 71.6%를 차지했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20건의 논문 게재 실적 중, 국제학술지 등급 이상의 논문은 6건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저널 게재뿐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국제 학술대회 발표 또한 매우 활발해졌다. 지난해 1학기 국제 학술대회 발표 포상 실적은 모두 12건으로, 국외 발표는 4건에 미국·중국(대만)·태국 등이었다. 이후 2학기에는 모두 31건으로 국제학술대회 발표 포상 실적이 크게 상승했으며, 국외 대면 발표 역시 16건에 호주와 태국, 핀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대만)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진숙 대학원장은 “대학원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끌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원에 노력을 쏟고 있다”며 “올해 4단계K21 대학원혁신사업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유레카초청강의... 첫 초대손님에 오석훈 진천캠퍼스 부총장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지난 9일 문화관 아트홀에서 2023학년도 유레카초청강의를 시작했다. 유레카초청강의는 매주 목요일 국내외 저명인사와 명망 있는 등문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학생들에게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강이다.

이날 첫 초대 손님으로 연단에 오른 오석훈 진천캠퍼스 부총장은 나를 알아주는 나의 우석, 우리 우석"을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다. 오 부총장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재학생들에게 "비전 있는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면서 "기적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본인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스스로 설계한 계획을 당당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바이오헬스 분야 공유·협업 세미나 개최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협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문화관 5층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오석훈 진천캠퍼스 부총장과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 정희석 학교법인 우석학원 사무국장 임재운 바이오헬스 IC 센터장 천현수 (유)휴먼에노스 대표이사, 학계 관계자 및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융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우석대학교의 특화 분야인 한의학·약학·한약학·식품영양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에 나선 천현수 (유)휴먼에노스 대표이사는 “기능성식품 시장은 대형 제약사들이 앞다퉈 참여해 사실상 중소기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가 됐다”며 “시장에서의 성공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 혁신적 제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광대 배현욱 교수와 김민선 교수가 신화질소 연구의 국제적 동향과 신화질소 대사체를 활용한 기초 및 임상실험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으며, 김중석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군산교육문화회관, 29일부터 학부모·자녀교육 프로그램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양서연)은 오는 29일부터 2023년 학부모·자녀교육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추진과제인 독서·인문교육 강화에 발맞춰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화준비 자녀 대화법, 자녀 독서지도 자녀 경제교육, 자녀 진로교육 등 8개 주제의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다. 첫 번째로 29일 '초등학교 입학준비' 저자인 이은경 강사를 초청해 '초등학교 입학준비 A부터 Z까지'라는 주제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4월 28일에는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아이의 말 공부' 저자인 임영주 강사가 부모-자녀 사이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공감 대화법의 비밀을 공개한다.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부모가 배우는 자녀 성교육', '꿈이 다른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경제교육' 등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0일 도내 유·초·중등 수석교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도교육청, 수업혁신 '박차'

서 교육감, 수석교사회와 간담회... 올 수업혁신 정책 살피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0일 도내 유·초·중등 수석교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교실혁명'에 집중하고 있는 서 교육감의 의지로, 수석교사와 함께 수업혁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전문가로서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수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교직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실혁명, 수업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3학년도에 새롭게 펼쳐지는 수업혁신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끌 선도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먼저, 수업혁신 지원단(초등)과 수업혁신 네트워크(중등)는 도내 100명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수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교직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모집 중인 수업내용 실천교사제는 컨설턴트로서 수업 코칭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돕는다.

에너지신산업 인재 양성... 국립군산대, RIS사업 최종 선정

친환경에너지 선도기술 확보 등 중점 추진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전북도와 함께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RIS 사업은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대학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후 5년간 국비 1,500억원 지방비 645억원 등 총 2,145억원이 RIS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인력·기술·산업·지역사회 4대 혁신을 통해 혁신인재 양성과 전북지역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중심대학 군산대학교), 미래수송기기(중심대학 전북대학교), 농

생명·바이오(중심대학 원광대학교) 등 전북지역 RIS 3대 핵심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군산대학교는 사업 선정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 기업과 주요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3대 핵심 분야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과 학사구조 개편,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심대학으로서 융합인재 양성, 탄소중립실현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선도기술 확보, 산학연 협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미래수송기기 분야에는 실무요소가 기술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양성, 수송기기 기술 고도화, 미래수송기기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